

##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2
2019 총회 소식	2
학회지 발간	3
회원동정	3
신간소개	4
공지사항	6
회비납부	7

발행일 2019. 12.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서상범

## 권두언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을 생각하면서 학회에 대해 몇 가지 생각들을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는 이제 30년을 넘긴 역사를 가진 장년의 학회가 되었습니다. 그간 쌓인 전통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활동의 모색은 바로 그간 쌓인 전통 위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은 러시아학 관련 학회들의 공동학술대회나 정례학술발표회 등을 충실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 해 오던 학회활동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임 회장단에서 추진해오던 ‘웃음’ 관련 논문집도 잘 마무리하고, 2017년 러시아 혁명 백주년을 준비하면서 기획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던 안들도 다시 검토하고 추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가령 2017년 러시아 혁명 백주년을 준비하면서 당시 혁명과 관련된 러시아의 문학, 문화 이론들을 번역해서 소개하자는 기획안이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기획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 중 아직도 유의미한 기획을 살려 학회 공동의 성과물로 만드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념하고 널리 알려 마땅할 새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당장 2020년은 한려 외교 수립 30주년이 됩니다. 2021년은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학회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이런 중요한 일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공부하는 학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가 변화하고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와중에 인문학의 영역은 분명히 양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소수적인 러시아학의 영역도 양적으로 보자면 점점 더 축소되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간 장년이 된 학회의 학회원들의 학문적 역량도 성장해왔다고 믿습니다. 이 역량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학술대회나 학술발표회 이외의 장들을 통해 만들어보는 일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학문후속세대에서 대학을 넘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독회를 진행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학술대회나 학술발표회 같은 공식모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모임을 기획하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 지금 제가 떠올리지 못한 다른 일들을 앞으로 학회원들과 의논해서 기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학회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나누는 공간[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헌태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10월 12일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주관 하에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현대 러시아학 연구의 제 문제: 공식성과 통시성”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학, 어학, 문화-통번역, 사회과학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본 학술대회에서는 총 34 편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문학, 어학 및 사회과학 분과에서는 학문후속세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참가자를 포함하여 약 300여명이 참가한 본 발표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12월 7일에 제 86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학술대회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의 러시아 인문학’이라는 주제 하에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상범 회장(부산외대)께서 사회를 맡아주셨으며, 강수경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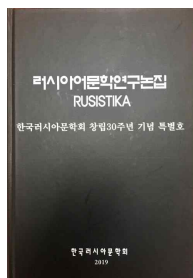
(부산대)과 함께 조미경 회원(계명대), 윤새라 회원(UNIST)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019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단체사진〉

## 2019 총회 소식

▶ 12월 7일 러시아문화회 회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러시아문학회 15대 학회장이신 서상범 회장께서 학회 연혁을 발표해 주셨으며, 전 학회장님들께 학회지를 헌정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결산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호〉

▶ 2019 총회에서는 제 16대 한국러시아문학회를 이끌어 주실 신임 임원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제 16대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장으로는 변현태 회원님(서울대)께서 선출되었습니다.



〈제86회 정례학술논문발표회 단체 기념 사진〉



〈제16대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변현태 회원님〉

## 학회지 발간

▶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6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문화 및 지역학 분야의 논문 10편이 수록되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이기주 회원(안양대)의 [고골과 동슬라브 신화 - 「이반 쿠팔라 전야」를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2편이, 어학 분야에서는 김형섭 회원(중앙대)의 [슬라브족과 인도-아리안(Indo-Aryan)족의 동질문화: 슬라브 신화와 언어학적 유사성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2편이, 문화 및 지역학 분야에서는 김윤미 회원(경북대)의 [러시아 역사 속 투르크 민족명에 관한 소고: ‘폴로베츠’와 ‘타타르’를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6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11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7집이 발간되었으

며, 문학, 어학 및 문화 분야의 논문 13편이 수록되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강수경 회원(부산대)의 [일프와 페트로프의 작품에 나타난 웃음: 소설 『열두 개의 의자(Двенадцать стульев)』를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4편이, 어학 분야에서는 이남경 회원(고려대)의 [극소 단계를 나타내는 정도어휘 의미론 -чуть, едва를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편이, 문화 분야에서는 권기배 회원(중앙대)의 [러시아 국민음악 속의 동슬라브 신화: 다르고미슈스키의 오페라 「루살카」를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6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2020년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8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회원동정

▶ 조주관 회원이 번역한 『호피를 두른 용사』와 관련하여 “『호랑이 가죽을 두른 용사』: 한권의 책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읽다”라는 제목의 도서전시회가 2019년 9월 4-2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호피를 두른 용사』는 조지아 중세 서사시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쇼타 루스타벨리의 서사시이며 본 도서전시회는 조지아국립필사본 센터 후원으로 주한조지아대사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 최선 회원이 경북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최선 회원의 새로운 번역서(『안나 까레니나』) 및 최선 회원의 새로운 소식과 관련하여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최선 회원(sunchoi0216@icloud.com)께로 연락바랍니다.

▶ 2019년 하반기에 한국러시아문학회에 새로이 가입한 이훈석 회원을 소개합니다. 이훈석 회원은 2010년도 성균관대학교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한 뒤, 2018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로 졸업하였습니다. 전공분야는 러시아 미술사(20세기-현대)입니다.



##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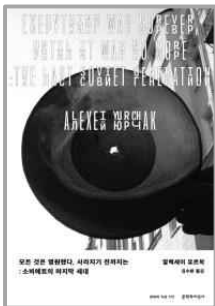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 1. 『공통의 장소』 (스베틀라나 보임 지음, 김민아 옮김, 그린비, 2019년 8월 26일 출간)

『공통의 장소』는 레닌그라드(현 페테르부르크)의 코무날카에서 살다가 미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택한 구소련 출신 망명자-문화 비평가인 저자가 발터 벤야민의 모스크바 여행에서 영

감을 받아 미국 관광객의 신분으로 고국에 방문하여 러시아와 소비에트의 문화 신화, 내셔널 드림,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사색하고 탐구한 결과물이다.



### 2.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알렉세이 유르작 지음, 김수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9년 9월 3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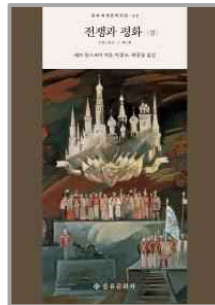
2005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학계에 큰 화제를 불러오며 후기 소비에트 시기 문화 연구의 불을 일으킨 이 책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를 살아간 사람들

이 현실과 관계 맺었던 방식에 대한 기존의 상투적인 가정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비에트 시스템의 본질에 놓여 있는 이 역설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강압, 공포, 부자유가 이상, 집단 윤리, 우정, 창조성, 미래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과 뒤섞여 있었던 실재했던 사회주의의 현실들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삶을 성찰하고 ‘호모 소비에티쿠스’와 같은 말로 폄하되어온 소비에트의 주체성을 재인간화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통해 소비에트의 갑작스러운 종말이라는 하나의 구체적 사

건에 대한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위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 경험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한 때 영원했던 소비에트의 풍경은 지금 우리의 삶, 그러니까 어떠한 대안도 가능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영속성의 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계도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줄 것이다.



### 3. 『전쟁과 평화 상, 중, 하』 (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종소, 최종술 옮김, 을유문화사, 2019년 12월 1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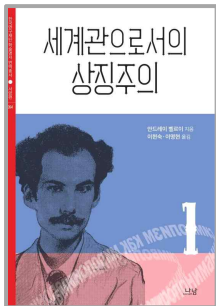
『뉴스위크』, 『가디언』, 노벨연구소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도서 가운데 하나인 『전쟁과 평화』는 도스토옙스키가 ‘예술의 신’이라고 칭송한 톨스

토이의 대표작이다. 1805년부터 1820년에 이르기까지 나폴레옹 전쟁 시기의 러시아 사회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톨스토이가 약 7년에 걸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탄생시킨 세계 문학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전쟁과 평화』는 실존했던 인물과 허구적 인물까지 5백여 명이 등장하는 대작으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성하는 대하 역사 소설이자 삶과 죽음에 대한 톨스토이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철학 소설이며, 사회 세태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삶의 윤리적 문제를 제시한 윤리 소설이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러시아 사회의 윤리적 문제, 시민 의식의 동향 등을 조망하며 역사의 근본 동인과 개인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톨스토이는 역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창조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 역시 인간적 관심사들로 채워진 일상적인 삶의 움직임 속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쓰인 『전쟁과 평화』는 전체로서의 삶의 흐름을 포착하고, 모든 대안적 가능성의 싹을 지닌 생생한 삶을 묘사하고자 한 톨스토이의 시도가 집대성된 최고의 결과물이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러시아 사회의 윤리적 문제, 시민 의식의 동향 등을 조명하며 역사의 근본 동인과 개인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톨스토이는 역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창조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 역시 인간적 관심사들로 채워진 일상적인 삶의 움직임 속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쓰인 『전쟁과 평화』는 전체로서의 삶의 흐름을 포착하고, 모든 대안적 가능성의 싹을 지닌 생생한 삶을 묘사하고자 한 톨스토이의 시도가 집대성된 최고의 결과물이다.



**4. 『세계관으로서의 상징주의 1, 2』**  
(안드레이 벨리 지음, 이현숙,  
이명현 옮김, 나남, 2019년 12월  
31일 출간)

러시아 상징주의자인 안드레이 벨리의 사상을 집약한 저작이 국내 최초로 발행되었다. 러시아 상징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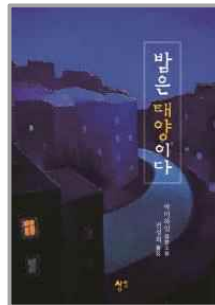
은세기(silver age) 문예부흥을 이끈 문예사조이다. 안드레이 벨리(1880~1934)는 작가로서 수많은 작품을 통해 러시아 현대 문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대표적 러시아 상징주의자다. 또한 벨리는 사상가로서 니체, 리케르트, 슈타이너 등 당대 사상가의 철학을 아우르며 평생 상징주의에 몰두했으며, 문학을 넘어 종교와 철학까지 포괄한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했다. 그의 야심찬 작품, 《세계관으로서의 상징주의》는 상징주의 사상가로서의 벨리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저서로 벨리 상징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개별 작가와 작품에 한정되었던 러시아 상징주의에 관한 국내 논의의 폭을 미학과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5. 『혁명과 모더니즘』 (이장욱 지음,  
시간의흐름, 2019년 7월 01일 출  
간)**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 것들이 있다. 이미 말해졌더라도, 다시 한 번 말해지기 위해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 이장욱 작가의 단단한 산문이자 문학연구자로서의 기록이기도 한 『

혁명과 모더니즘: 러시아의 시와 미학』이 ‘시간의흐름’에서 개정 재출간되었다. 작가는 이 책에서 20세기 러시아의 주요 시인과 이론가를 소개한다. 다만, 일반적인 문학사적 상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몇몇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난 세기 초의 시인과 이론을 재검토한다. 특히, 몇몇 주관적 의견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판단의 영역을 부각하며, 미적 사유의 구조나, 은유와 환유가 서로 섞이고 모호해지는 과정, 말과 사물 혹은 언어와 리얼리티의 관계 등을 깊이 들여다본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은 ‘리얼리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6. 『밤은 태양이다』 (박미하일 지  
음, 전성희 옮김, 상상, 2019년 10  
월 11일 출간)**

이 소설의 주인공은 스물네 살의 젊은 ‘비켄티’라는 청년이다. 주인공은 모스크바를 향하는 기차 안에서 순수했던 열여섯 살 시절의 레라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린다. 그리고 기

차에서 만난 레라와 사랑을 하게 된다. 레라와 함께 카잔역에 도착한 그는 그녀에게 그가 쓴 시 한편을 들려준다

레라와 헤어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비켄티는 조카가 보리스를 만나 그의 소개로 화물 선에서 지내게 된다. 얼음이 덮인 네바강 위에 정박해 있는 화물 선 안에서 비켄티는 레라를 그리워하며 시와 동화를 쓴다. 그가 쓴 아름다운 시와 동화는 소설의 전개 과정에 삽입되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작가는 주인공 비켄티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었

을까? 이 소설은 소련 붕괴 이후 밤이 계속될 것만 같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이것 역시 태양이라고 믿고 꾀꾀하게 자신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과 함께 담아내고 있다.



**7. 『안나 카레니나 1, 2, 3』 (톨스토이 지음, 최선 옮김, 창비, 2019년 11월 8일 출간)**

1878년 출간된 이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영화로 연극으로 뮤지컬로 발레로 끊임없이 변주되며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니나』(전3권)가 창비세계문학 70~72번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친구인 비평가 니콜라이 스트라호프에게 보낸 편지

에서 자신의 ‘(진정한) 첫번째 소설’이라고 일컬었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가의 ‘인생소설’이기도 하다.

국내 뿌시킨 권위자로 서정적이고 섬세한 번역을 선보여온 역자 최선(고려대 노문학과 명예교수)은 두가지 러시아어 판본(1963, 1981~82)과 영어판(1998, 2006), 독일어판(2009), 나보코프의 『러시아 문학 강의』(1981)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번역에 입체적인 주석을 더해 텍스트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품해설’에서 각 부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이 앞부분의 흐름을 잊지 않고 상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창비판 『안나 카레니나』는 이 책을 처음 읽는 이들에게는 ‘인생소설’을 발견하는 기쁨을, 먼저 접했던 이들에게는 기존 판본과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읽는 묘미를 선사할 것이다. 더불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주인공이자 오랜 세월 오도되어온 캐릭터이기도 했던 안나 카레니나를 새롭게 보기에 더없이 적절한 때이다.

국내 뿌시킨 권위자로 서정적이고 섬세한 번역을 선보여온 역자 최선(고려대 노문학과 명예교수)은 두가지 러시아어 판본(1963, 1981~82)과 영어판(1998, 2006), 독일어판(2009), 나보코프의 『러시아 문학 강의』(1981)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번역에 입체적인 주석을 더해 텍스트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품해설’에서 각 부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이 앞부분의 흐름을 잊지 않고 상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창비판 『안나 카레니나』는 이 책을 처음 읽는 이들에게는 ‘인생소설’을 발견하는 기쁨을, 먼저 접했던 이들에게는 기존 판본과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읽는 묘미를 선사할 것이다. 더불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주인공이자 오랜 세월 오도되어온 캐릭터이기도 했던 안나 카레니나를 새롭게 보기에 더없이 적절한 때이다.

## 공지사항

###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8집 투고 안내

2020년 2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8집의 제출 마감일은 2020년 1월 15일입니다.

### ▶ 논문 투고 규정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챔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26장부터는 장당 1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지불한다.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수혜논문: 35만원, 비전임 5만원, 비전임 연구비

수해논문: 25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차.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 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시오.

\*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14-4155946, 예금주: 이선영

## 회비납부

### ▶ 회비 납부 현황

2019년 12월 15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 2019년 하반기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회원님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김규중 교수 2,000,000원

변현태 부회장 1,000,000원

### ▲ 2009~2019년 상반기 특별회비를 출연해 주신 회원님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이대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9)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8)

이규환 전 회장 2,000,000원 (2017)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7)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7)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7)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2016)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 2017~2019년 평생회비를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문석우(50만 원), 백용식(50만 원), 정경택(50만 원),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이상 10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9년 12월 15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규연,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4인)

### ▲ 평생회비 부분납(2019년 12월 15일 현재)

강수경,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  
(25만 원) (이상 11인)

### ▲ 연회비 납부(2019년 12월 15일 현재)

강철 박미정 신혜조 이훈석(이상 4인)

### ▶ 2019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준회원의 경우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 연회비 면제).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02856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8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503호 러시아CIS연구소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사무국

TEL: 02) 3290-1641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http://www.russian.or.kr)